

'5월 의인' 헨틀리 목사 원하던 광주에 잠들다

1980년 참상 세계에 알려 "유골 절반 광주에" 유언 아내·딸 등 유족 광주 방문 양립동 선교 동산묘원 안장

1980년 5월의 참상을 세계에 알렸던 고(故) 찰스 헨틀리(Charles Huntley·한국명 허철선 1936~2017)목사가 그토록 원하던 제2고향인 광주의 땅에 묻혔다.

"5월의 의인"인 헨틀리 목사는 지난해 6월 26일 81세로 미국에서 타계하기 직전 "유골의 절반을 광주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광주일보 2017년 8월 28일자 7면>

그는 세상을 떠난 지 326일만인 지난 17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자택에서 1만2000여km 떨어진 광주시 남구 양립동 선교동산묘원에 안장됐다. 유족은 헨틀리 목사의 생전 유언에 따라 화장한 유골 가운데 절반을 이곳에 묻었다. 안장된 곳은 생전 헨틀리 목사가 직접 관리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날 오전 10시 광주시 남구 양립동 선교동산묘원에서 진행된 안장식은 아내 마사 헨틀리(Martha Huntley) 여사와 첫째 딸 매리(Mary Wagner), 막내딸 제니퍼(Jennifer Mario), 사위 제레미(Jeremy Mario), 손녀 그레첸(Gretchen Marie Mario) 등이 참석했다.

안장식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미국에서 가져온 고인의 유골함에 입을 맞추며 작별인사를 했다.

선교사묘역을 관리하고 있는 호남신학대가 지난달 20일 이사회를 열고 헨틀리 목사 안장을 결정하자 유족은 지난 15일 광주를 찾았다.

헨틀리 목사는 워런 헨츠펠터, 아들



17일 오전 광주시 남구 양립동선교동산묘원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세계에 알렸던 찰스 헨틀리 목사의 안장식이 열렸다. 헨틀리 목사의 딸인 매리와 그녀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드 피터슨 선교사 등과 함께 5·18 의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29살에 한국을 방문한 헨틀리 목사는 1969년부터 광주에서 선교 활동을 이어왔다.

1980년 5월 광주기동병원 원목실장으로 재직했던 그는 5·18의 참상을 촬영해 직접 인화한 뒤 지인을 통해 몰래 미국으로 보내 5·18의 진실을 전세계에 알렸다.

그는 또 독일기자인 워런 헨츠펠터와 사택에서 5·18의 참혹한 진실을 알리는

인터뷰를 했으며, 항쟁 기간 계엄군에 쫓기던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기도 했다.

마사 헨틀리 여사는 이날 "오늘 안장식을 보니 남편 못지 않게 한국 사람들이 남편을 정말 좋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오늘은 슬프면서도 가장 좋은 날로 남편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매우 기뻐했을 것 같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홍인화 허철선선교사유해안장위원회 위원장은 "마사씨가 남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1년동안 집안에 유골함을 보관하고 있었다"면서 "마사씨가 아무도 남편의 유언에 대해 신경을 써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관심을 보여준 광주일보에 대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사 헨틀리 여사는 18일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여해 남편과 우리나라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를 낭독한 뒤 19일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김한영기자 young@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7 달뜨기 07:53
해질녘 19:31 달지기 22:29

5·18 영령을 추모하는 비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비온뒤 맑	20/25	보성	비온뒤 맑	18/25
목포	비온뒤 맑	18/21	순천	비온뒤 맑	20/27
여수	비온뒤 맑	19/26	영광	비온뒤 맑	18/21
나주	비온뒤 맑	18/23	진도	비온뒤 맑	18/22
완도	비온뒤 맑	19/24	전주	비온뒤 맑	19/22
구례	비온뒤 맑	20/26	군산	비온뒤 맑	17/19
강진	비온뒤 맑	19/24	남원	비온뒤 맑	20/25
해남	비온뒤 맑	18/23	홍산도	비온뒤 맑	15/19
장성	비온뒤 맑	18/23			



◇바다 날씨

지역	안바다	오전		오후	
		남서~서	동해	남서~서	동해
서해	안바다	남서~서 0.5~1.5	서~북서 0.5~1.0	남서~서 0.5~1.5	서~북서 0.5~1.5
남부	안바다	남서~서 1.0~2.0	서~북서 0.5~1.5	남서~서 0.5~1.5	서~북서 0.5~1.5
남해	안바다(동)	남서~서 1.0~2.5	남서~서 1.0~2.5	남서~서 1.0~2.5	남서~서 1.0~2.5
서부	안바다(서)	남~남서 1.0~2.5	남서~서 1.0~2.0	남~남서 1.0~2.5	남서~서 1.0~2.0

◇생활지수

☔	관심
☀	보통
☁	자외선
👤	좋은

◇주간 날씨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24(목)	25(금)
☀	☀	☀	☀	☀	☀	☀
16/24	13/24	16/24	15/25	15/23	15/25	15/25

전남 5·18 현장 사적지 지정 지지부진

전남지역 5·18 역사 현장의 사적지 지정이 지지부진하다. 전남도는 지난해 8월 5·18 사적지에 대해 종합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기념물이 전남 8개 시·군에 총 74개가 있다. 표지석 52곳, 안내판 21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화순이 13개로 가장 많고, 목포 12개, 나주 11개, 해남·영암·함평 각 8개, 강진 7개, 무안 6개 등이다. 하지만 대부분 안내판 설치에 그쳤을

뿐 관리가 부실하다. 사적지 지정과 관리가 시·군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적지 알리미의 디자인·크기 등이 통일성 없이 제각각이고, 설명문에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 장소가 부적절하 가운데 사적지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전남지역 5·18 현황분석과 기념사업, 사적지 지정 및 보존계획 등을 담은 '전남도 5·18기념사업 기본계획' 용역 결과는 오는 11월에 나올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5·18 수괴 전두환·노태우 경호 중단을" 국민 청원

광주시민단체 "의경에 모욕적인 일"... 靑 계사관 내달 16일 마감

'80년 광주학살'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중단해야 한다는 청원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군인권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전·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에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17일 올렸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18년 기준 두 사람의 경호에 드는 비용은 9억원 정도"라며 "전 전 대통령 사저에 직업경찰 10명과 의무경찰 약 80명, 노 전 대통령 사저에 직업경찰 9명과 의무경찰 약 80명이 투입되고 있다"

고 밝혔다.

단체는 "두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내란 수괴이자 5·18 광주 학살의 원흉으로 현정 질서를 짓밟은 범죄자"라며 "범죄 단죄가 이뤄지고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권력 전탈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살해한 이들을 혈세로 경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혈세 투입과 별개로 두 전직 대통령 경호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인권침해도 거론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입대해 의경으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내란 수괴 경호 임무를 맡기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단체는 이어 "수차례에 걸쳐 경호 중지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이 두 전 대통령을 '주요 인사'로 취급하지 않으면 이들을 경호할 이유가 사라진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경호를 중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경호 중단 청원은 제38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맞아 민주 영령을 기리고 의경과 직업 경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 중단 청원은 다음달 16일 마감된다. 기한 안에 20만 명 이상이 이 청원에 동의하면 청와대 또는 정부 공직자가 공식적으로 답변하게 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내버스 임협 잠정 타결

광주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난항을 겪던 임금협상에서 2차 조정 끝에 잠정 합의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과 버스 노조 대표들은 16일 광주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통상임금 3.8% 인상, 호봉제 10호봉 신설(기존 9호봉), 무사고 수당 5000원 인상, 대형버스 운전원 정년 61세로 연장(기존 60세), 중형버스 근무제 1일 2교대 전환(기존 격일제) 등이다.

노조 측이 요구한 중형버스 근무사 계 약 기간 1년 주기에서 65세까지 무기계약 보장 부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시내버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18일경 최종합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oh@

5·18 순직 함평 경찰관 희생정신 재조명

시위대 버스 대치 과정 4명 희생... 전남경찰 추도비 제작

전남지방경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18일 오후 2시 함평경찰서에서 5·18 당시 순직한 경찰관 추도비를 제작하고, 추도식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추도식에는 강성복 전남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와 인근 10개 경찰서 서장, 함평서 직원, 함평서 경우회장, 유가족 등 80여명이 참석한다.

함평서 소속 정종길(당시 39세) 경사와 이세홍(39)·박기웅(38)·강정용(39) 경장은 시위대를 강경진압하지 말라는

안병하 치안감(당시 전남도경찰국장) 지시에 따라 시위대 버스 행렬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숨을 거뒀다.

이들 경찰관은 1980년 5월 20일 밤 9시 30분께 당시 광주시 광산동 노동부 청사 앞에서 전남도청 경찰저지선 임무를 수행하던 중 시위군중을 태우고 질주하는 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순직했다. 버스 운전사는 최후만 가스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방향을 틀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보청기 www.maxo.co.kr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3-GN1-10-0067
*이 제품은 '연속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또는 보청기를 처음, 다시 하려면...!

- 매우 중요한 사실 -

일반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로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성(노화성), 신경성 난청은 다릅니다. 소리가 크게 해주면 청각 인식범위가 좁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이는 청각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보충현상(Recruitment)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되, 말소리(어음)와 여러가지 소리를 잘 인식·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기능이 없으면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잘 알아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맥스' 보청기의 기술·기능입니다. 대한보청기는 '맥스' 보청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난청과 보청기는 소리의 인식과 식별의 기술이 핵심이므로 대한보청기는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격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맥스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맥스 프로 **맥스 스탬프** **맥스 크리스프** **맥스 스코프** 등은 그러한 상위기능의 제품군으로 소개됩니다. 대한보청기의 본사 직영센터는 보청기의 상위핵심 기술로서 소리의 식별·인식의 기술 및 기능을 매우 중시하며, 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맥스를 시험관정에 드리므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책자 무료 발송
보청기의 종류·가격·시험센터
상담·검사·구입·무이자할부 등 안내

귀여움~

RIE(8-16개월) 고급제품 대할인 특별행사!! 보조금으로 고급제품 무료구입!! (청각장애등급2-6급 소지자)

◆장안본점 02)2248-5600 ◆중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진)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30일 전국, 천사 무료 방문 서비스!

광주·전남 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 본점 **063)251-4999**